



동양시멘트(주)

노영인 사장, 중국 북경레미콘 3사 순시



노영인 사장이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북경지역 레미콘 현지법인 3사 순시 및 순동레미콘 준공식 참석차 중국 북경지역을 방문했다. 방문 첫날인 7일 북경레미콘 3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에 증설을 완료한 동건레미콘과 부국레미콘 현장을 시찰한데 이어 다음날인 8일엔 순동레미콘 이전준공식에 참석하여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내빈을 접견하였다. 노영인 사장은 “북경지역 레미콘 시장현황이 2008년 올림픽으로 인한 기회요인과 신규업체 난립으로 인한 위기요인이 병존하는 상황”이라며 원가절감과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수익위주의 경영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더욱 더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4대 삼척공장장 취임식

11월 1일자로 김배호 전무를 제14대 삼척공장장에 위촉하고 지난 11월 3일 삼척공장 강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 삼척공장 임직원을 비롯한 노조 대표자, 협력사 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김배호 삼척공장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라, 대체재 및 수입시멘트의 급격한 시장잠식, 세계적인 물류비 상승에 의한 수출환경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원가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효율의 내실경영을 강화해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도록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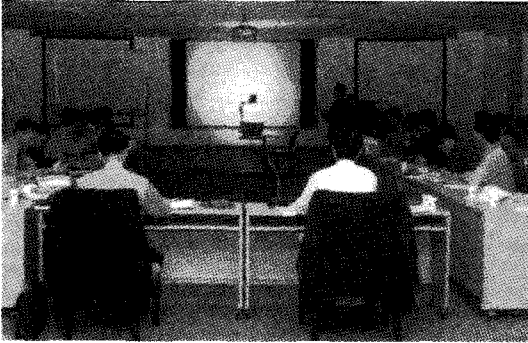


노영인 사장, 삼척공장 신광산 개발지역 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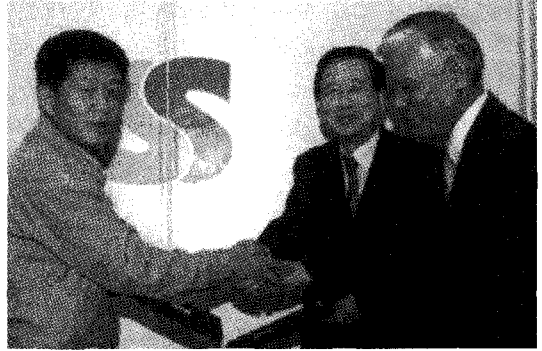
노영인 사장은 지난 11월 24일 삼척시 근덕면 일대 52만평 규모의 삼척공장 신광산 개발지역과 파인밸리 골프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황을 보고 받고 임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영업전략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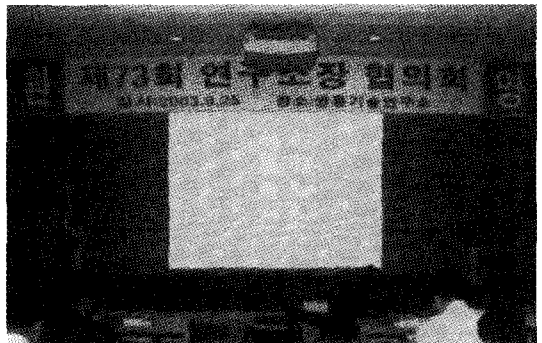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영업본부장인 박수건 전무를 비롯한 영업본부 및 각 지사 간부, 해운팀, 삼척공장 생산기획팀 등 영업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입 영업본부장 및 영업담당임원 상견례에 이어 각 지사별 실적 보고와 시장환경 분석을 통한 2004년도 영업전략 수립, 공장 및 영업관리 서식 표준화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영업본부장 박수건 전무는 강평을 통해 “2004년에는 전반적인 영업 여건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보다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창식 상무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04년에는 보다 나은 실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평했다.



7%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는 2003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명호근 사장은 “여러가지 여건속에서도 노사가 회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협상을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가 합심해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이뤄 독자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스즈키 타다시 부사장은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광호 노조위원장도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73회 연구소장 협의회 개최



지난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제73회 연구소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소장 협의회는 1,024개의 연구소 소장이



쌍용양회공업(주)

2003년도 임금협상 체결

10월 1일 3층 대회의실에서 명호근 사장과 한광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 임금기준의

참여하는 행사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간의 유대강화, 기술개발관련 각종 정보제공, 교환, 연구생 산성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종열 기술연구소장이 임기 2년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2회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상 수상

11월 1일 서울대 신공학관에서 중하중 교통도로의 신속개통형 대보수 및 덧씌우기 고성능 강성 포장재와 그 시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상을 수상하였다. 이미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신속개통형 콘크리트 포장기술을 실제도로에 시공해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비교해 시공성과 내구성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으며 향후 신속개통형 콘크리트 포장재가 실용화되면 1~3년 주기의 보수공사를 10~20년 이상으로 연장시켜 보수유지비용은 물론 국가 건설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기술연구소 김병권 차장, 세라믹학회 기술진보상 수상

기술연구소 시멘트연구실 김병권 차장이 10월 17일 한국세라믹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술진보상을 수상했다. 김병권 차장은 시멘트 품질기술의 향상은 물론 저열포틀랜드시멘트인 벨라이트 시멘트의 개발 및 실용화에 주력해 인천LNG인수기지 등 국가 주요 SOC 건설사업에 적용시키는데 노력했다. 또한 특수시멘트 분야에서도 CSA 크링카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초속경시멘트, 팽창재 등 고부가가치의 신제품을 실용화하는 등 시멘트 산업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됐다. 한편 벨라이트 시멘트는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20세기 100대 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홍보영화, 「시멘트의 힘」 배포

기업홍보영화인 「시멘트의 힘(Power Of Cement)」을 제작, 완료했다. 「시멘트의 힘」은 당사의 발전의지와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영상자료로 외부 고객방문시 당사를 소개하기 위해 국문, 영문, 일문 등으로 제작했다. 지난 5월 동해공장을 시작으로 시멘트부문과 레미콘부문, 그리고 R&D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제작된 시멘트의 힘은 총 11분 30초 분량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시멘트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멘트 스토리(Cement Story)」 역시 새롭게 구성해 각공장에 배포했다.



한일시멘트(주)

레미탈 KS 대상 수상



레미탈이 「2003 KS대상」에 선정됐다. KS대상은 KS 인증제품 가운데 품질수준과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선정하여, 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KS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포상제도로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

다. 이번 KS대상 수상은 드라이물탈업계 최초로 KS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또 KS대상 신청 첫째에 이룬 쾌거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깊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KS대상 선정을 위해 1차로 70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분야별 심사와 현지 실사를 시행하였는데, 이와 관련, 인천 공장이 지난 8월 표준협회의 실사를 받은 바 있다.

레미가드 공법 2003 WATER KOREA 참가



레미가드라는 새로운 제품과 시공법으로 2003 WATER KOREA-부산국제상하수도 전시회에 참가했다.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 BEXCO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레미가드는 내산성, 고내구성 등을 강화한 특수 레미탈 제품으로 콘크리트 보수 및 마감재로써 각종 화학처리를 요구하는 정화, 정수시설, 황산염에 의한 피해 빈도가 높은 하수관 시설물에 용이하도록 연구개발되었다. 레미가드의 경우, 특화된 품질은 물론이고, 미니 싸이로를 이용한 간편한 시공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다.

훌륭한 일터상 수상

「2003 환경-레버링 훌륭한 일터상」을 수상했다. 10월 8일 당사를 비롯해 훌륭한 일터상 수상업체로

선정된 15개사에 대한 시상식이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있었다. 한국경제신문과 엘테크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훌륭한 일터상은 신뢰경영의 3대축인 회사에 대한 신뢰도(Trust)와 자부심(Pride), 재미있는 일터(Fun)부문을 중심으로 종업원 신뢰지수와 기업문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훌륭한 일터상이 임직원 대상의 설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임직원들의 애사심과 자긍심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전년도에 이은 2년 연속수상의 영예까지 안겨줬다.

본사 체련회 실시

2003년도 본사 체련대회가 10월 25일 경기도 광주 청량산 소재 남한산성에서 열렸다. 남한산성 원형광장에서 오전 11시까지 집결하여 간단한, 개회식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체련회에는 본사 임직원 13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체련회는 개회식후 7개조로 나뉘 출발하여 남문, 남장대지, 개원사를 거쳐 하산하는 약 2시간여의 산행과 보물찾기, 중식, 화합의 시간,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단합된 모습으로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무사히 등산을 마쳤다. 정환진 사장은 이날 체련대회에서 “오늘의 체련회는 본사 전 임직원이 ‘함께 우리 한일 가족의 패기와 열정을 확인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늘 오늘과 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세아시멘트(주)

김동열 사장, 한국 최고 CEO 10인에 선정



김동열 사장이 시사저널이 선정한 '한국 최고 CEO 10인'에 선정되었다. 평가는 동원증권 리서치본부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도성 교수에 의해 추진되었고 거래소 상장기업 688개를 대상으로

시가총액, 매출, 영업이익, 업종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140개 우량기업을 선정한 후 실질시가총액 상승률, 경상이익 증가율, 경제적 부가가치 증가율을 중심으로 최고 CEO 10인을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열 사장은 1999년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주주가치 중심,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경영으로 지속적인 회사발전을 주도해 왔다.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수상

한국경영인협회가 선정하는 '2003년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9월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 클럽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고병우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고 동원증권 리서치센터가 협조하여 부문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 시상하는 행사로써 당사는 기업의 규모,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업가치를 평가항목으로 채점하고 기업브랜드 및 혁신력, 연구개발, 지배구조, 기업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비금속 광물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제천공장, 자연보호운동 유관단체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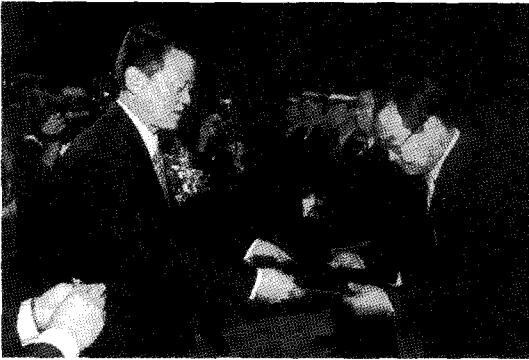
제천공장이 지난 10월 4일 제천시가 개최한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23주년 기념식'에서 유공단체로 선정되어 제천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제천공장의 환경보호활동 전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제천공장은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 개선, 1사1하천 운동의 지속적 실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활동 참여 등 자연보호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SUNGSHIN 성신양회(주)

박찬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수상

「제104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18일 정부 대전철도청사에서 개최한 기념식에서 박찬 대표이사가 우리나라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철도의 날」행사는 우리나라가 첫 철도가 놓인,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개통을 위해 해마다 9월 18일에 개최되는데, 올해로 철도개통이 104주년을 맞았다. 이날 박찬 대표이사가 수상한 「철도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



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이에게 수여하는 '산업훈장'이다.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지난 11월 1일 옥계면/라파즈한라 장학재단은 2003년도 장학재단 제1기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옥계면/라파즈한라 장학재단은 당사가 지역사회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옥계면 주민들과 함께 설립한 장학재단으로서 당사에서 출연한 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억원의 증자를 통하여 2006년까지 총 8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으로 출범하게 된다. 옥계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장학금 수여 행사에는 지역 기관

장 및 재단 관계자와 장학생 학부모 등이 참가하였으며,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은 자체 선발조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고교생과 대학생을 비롯한 총 62명으로 학생들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올해 제1기 장학금 행사를 가진 장학재단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석회석 광산 생태복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주관으로 당사 옥계광산 및 동해대학교에서 석회석 광산 생태복원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당사 옥계광산에 대한 학술답사로 시작된 심포지엄 일정은 워크숍 및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학회의 전문학자들과 지역 환경단체 및 관련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특히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당사 광산을 사례로 한 한국 석회석 광산의 앞으로의 생태복원 계획과 기술적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져 참가자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석회석 광산의 생태복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 및 정보교류의 기회가 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광산 복구에 대한 당사의 노력과 열의를 외부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써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